

예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

오늘은 예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3 :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 : 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 : 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먼저 지난 번 시간에 강해한 것을 복습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창세전부터 계셨다, 우리는 하나님이며 인간이신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은 사람에게 당신의 의를 전가하시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인격에 대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공부하게 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믿음의 내용이 되는, 핵심 중 핵심이 되는 교리입니다.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로마서 3 :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 : 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 : 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본문에서 중요한 말은 구속이라는 말과 화목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1. 구속(redemption)

먼저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구속의 의미는 “값을 주고 다시 샀다” 하는 것입니다. 속전(ransom)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24 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요한복음 19 : 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고 하셨습니다.

신 포도주를 받으셨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속담을 통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에스겔 18 : 2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찜이뇨 (렘 31:29)

에스겔 18 : 3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조상이 신 포도를 입에 물으니, 자손의 이가 시리다는 말은, 조상이 지은 죄가 후손에게까지 상속되어 내려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 오는 원죄의 형벌로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말의 “다 이루었다”는 **tetelestai(complete, discharge (a debt))**로서 값을 다 지불하였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는 것은, 아담 이후로 내려오는 모든 원죄의 형벌인 죽음을 당신이 대신 죽음으로 다 갚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지불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구속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3 :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속의 효력이 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 :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중적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값을 주고 다시 사셨으니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야 합니다.

II. 화목 제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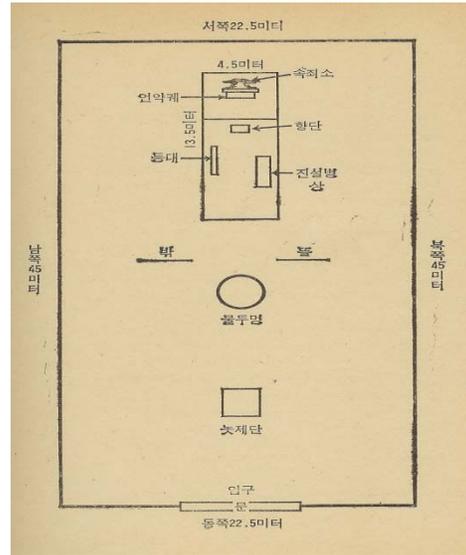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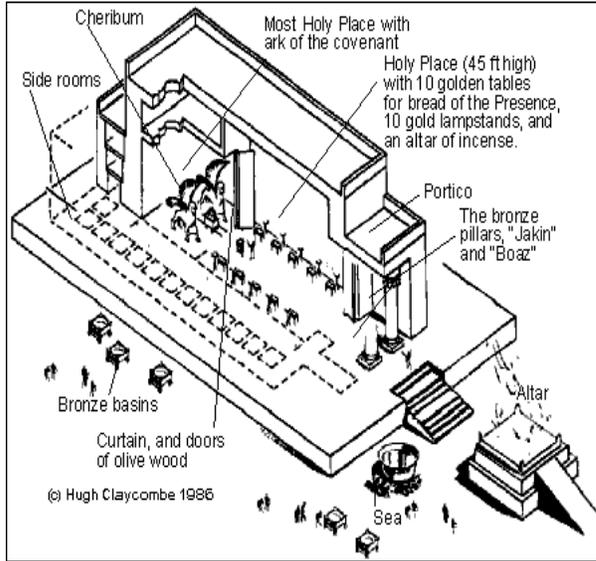
다같이 3:25 을 읽으십시오.

로마서 3 : 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helasterion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사 용어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 helasterion을 번역한 말인데, 구약에서는 속죄소¹ (시은소, helasterion, mercy seat)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1.먼저 화목 제물 helasterion 과 같은 용어로 쓰인 속죄소 helasterion 가 무엇인지 공부하십시오.

¹. ..\..\1a0 Lib of ST Thesis\04 Soteriology\merct saet-V.do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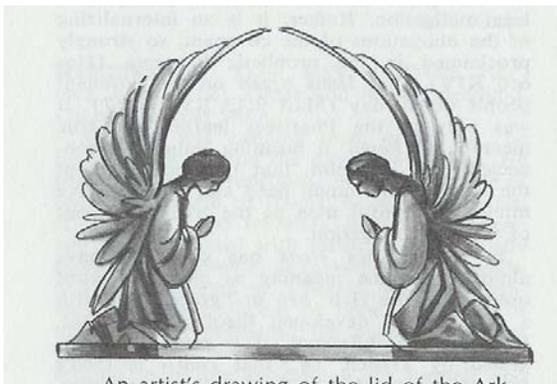


이 그림은 솔로몬 성전을 그린 것입니다.

먼저 제단이 있습니다(Altar, 놋제단). 여기서 모든 제물을 불태워 드립니다. 다음은 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Sea, 물두멍). 이것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 가기 전에 깨끗이 씻기 위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Holy Place)가 나옵니다. 성소 안에는 양 옆에 10 개의 떡상과 10 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지성소(Most Holy Place)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일년에 한차례 오직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 갑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받은 석판으로 된 율법과 아론의 싹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양편에는 세리붐(Cherubim)이라고 하는 두 그룹 천사가 언약궤(Ark of Covenant)를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금으로 만든 판이 있는데 이것을 속죄소(Mercy Seat, *Helasterion*) 라고 합니다.

2. 속죄소 helasterion 의 역할



속죄소는 다른 것이 아닌 언약계 위에 놓여진, 언약계의 뚜껑 같은 것입니다. 금으로 싼 판인데 양 옆에 그림과 같은 그룹 천사가 언약계를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는 한해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해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리러 이 지성소에 들어 갑니다. 이 때 반드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피를 가지고 들어 가야 합니다. **이 때 대제사장은 가지고 들어 간 피를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러면 일 년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은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언약계 안에 있는 모세의 율법과 그 것을 덮는 속죄소, 그리고 화목을 위한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때, 중간에 속죄소가 없었다면, 언약계 안에 있는 율법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계와 하나님 사이에 속죄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 : 13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화목제를 번역할 때 쓰인 말 helasterion 이, 바로 속죄소에서 사용되었고, 롬 3:25 에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와 속죄소와 로마서 3:25 의 화목제물은 동일한 대상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소이고, 그의 피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 뿌려진 화목제물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보실 때, 중간에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없었다면 언약계 안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계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인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시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속죄소를 통해 내려 옵니다.**

속죄소를 시은소(施恩所, Mercy Seat)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며, 속죄소는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3:25 을 보십시오.

로마서 3 : 25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율법에 의해 판단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된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화목제물의 효력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reconciliation, propitiation)하게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22-23 에서

골로새서 1 : 22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recomcil)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서 1 : 23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다시는 하나님과의 불화로 인한
원수 관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4.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케 된 자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합니다.

골로새서 1 : 22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recomcil)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무엇 때문에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화목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 : 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피할 요새와 바위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우리마음에 열매가 맺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므로 이루어진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루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로마서 14 : 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²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읽어 보십시오.

시편 91 : 1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시편 91 : 2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 : 5 너는 밤에 놀렘과 낮에 흐르는 살과

시편 91 : 6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시편 91 : 14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시편 91 : 15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². 요한복음 14 :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시편 91 : 16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칠 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여러 분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